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JAPAN

일본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일본 조선소 그리스 선주 탱커 발주 증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종합

이번 주 일본 조선업은 그리스 선주 이오닉으로부터 탱커 4척을 수주하며 선대 확장 흐름을 이어감. 이는 일본 조선소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국제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

일본 조선업의 수주 지속은 글로벌 해운 시장 내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속에서 일본 조선소의 기술 개발 속도가 향후 수주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일본	214 \$/FEU	06/22	-4.0%	-10.1%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6/22

일본 조선소 그리스 선주 탱커 발주 증가

그리스 선주 이오닉이 일본 조선소에 탱커 4척을 발주하며 일본 건조 선대 확대를 지속함.

이오닉은 자사 설립 이래 일본 조선소에 집중해온 선대 확대 전략에 따라 수에즈막스와 아프라막스 탱커 4척을 일본 조선소에 발주함. 구체적 가격과 인도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선주는 해당 발주가 확장보다 선대 교체 목적이 크다고 밝힘. 글로벌 탱커 선대 노후화에 대응해 더 효율적인 선박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함.

이오닉은 현재 7척의 탱커(아프라막스 6척, 수에즈막스 1척)를 운영 중이며, 전량 JMU, 스미토모, 나무라, 쓰네이시 등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됨. 최신 선박은 2025년 인도된 15만9,120 DWT 수에즈막스 이오닉 세멜리호로 JMU 건조. 벌크 부문에서도 이마바리, 사세보, 쓰네이시, 미쓰이 등 일본 조선소에서 11척을 운영 중.

이번 발주는 일본 조선소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며, 그리스 선주들의 일본 조선소 선호 추세를 강화함. 글로벌 탱커 선대 노후화(평균 선령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로 신조 효율성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조선소는 고부가가치 탱커 수주에서 경쟁력을 유지함.

- 이오닉, 탱커 4척(수에즈막스-아프라막스 혼합) 일본 조선소에 발주
- 이오닉의 기존 탱커 7척 전량 일본 조선소 건조
- 최신 선박: 2025년 인도 JMU 건조 수에즈막스 이오닉 세멜리(15만9,120 DWT)
- 이오닉 벌크 부문도 일본 조선소 11척 운영
- 발주 목적: 선대 확장이 아닌 교체 중심

전망

일본 조선소는 그리스 선주를 중심으로 탱커 발주가 지속될 전망. 글로벌 탱커선대 노후화 및 환경규제로 효율적 신조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조선소의 고품질 탱커 수주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됨. 다만 선가 상승과 인도 지연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일본 건조 탱커의 효율성 및 신뢰성은 장기 용선 계약에 유리하나, 발주 증가로 선박 공급이 확대되면 운임 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음.

포워드 — 탱커 시장에서 일본 조선소 발주 증가는 선대 현대화로 이어져 물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나, 신조선 인도 전까지 기존 선대의 운임 변동성은 지속됨.

항만·선사 — 일본 조선소가 탱커 부문에서 수주 경쟁력을 유지함에 따라 관련 선사 및 항만의 수혜가 예상됨.